

비색청자

탐진 도공들이 가을 가마에 불을 때고 난 뒤였다. 가을건이가 끝나자마자 도공들이 여름 내내 만들었던 초벌기물에 청자유약을 바른 뒤 가을 가마에 재입했던 것이다. 김 도공도 가을 가마에 불을 때고 나서 가마가 식기를 기다렸다. 도공들이 만들어온 청자를 품평하는 대구소 향리가 최사전을 초대했다. 최사전을 맞이한 장소는 대구소 앞 당전이였다. 최사전은 가능한 한 대구소를 찾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향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최사전은 귀양 온 몸이지만 그의 큰아들 최변(崔弁)은 정3품 이부상서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대구소 향리는 최사전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했다.

“태의 나리, 여그서 사심시로 불편하시지는 않는게라우?”

“지지난 달에는 정안현 임 족장 댁을 다녀왔습니다.”

“탐진 도공덜을 많이 도와주시는 어른이지라우.”

당전 다탁에는 다기 대신 청자주병과 사발 두 개가 놓여 있었다. 향리는 최사전에게 술을 대접할 생각이었다. 향리가 먼저 최사전 앞에 있는 사발에 술을 따랐다. 그러자 최사전도 향리 앞에 있는 사발에 술을 부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작을 했다. 최사전은 대구소 향리가 어떤 기준으로 청자를 품평하는지 궁금했다.

“향리 나리, 청자를 품평할 때 무엇을 보는 것이요?”

“우선 모양을 보그만요. 생김새가 더한 것도 읊고 모자란 것도 읊어야겠지라우. 그래야 완벽한 모양이라고 하지라우.”

“모양을 본 다음에는 무엇을 보는 것이요?”

“탐진의 초여름 산자락 빛깔인지 아닌지를 보그만요. 탐진 바다멩기로 투명한지 아닌지도 중요허고라우.”

“사람으로 치자면 피부색을 보는 것 같소.”

“맞그만이라우. 그라고 또 으떤 조각이 있는가를 보지라우.”

대구소 향리는 품평 기준을 세 가지, 즉 모양과 빛깔, 조각을 꼽는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용운마을 김 도공의 솜씨는 세 가지 품평기준과 일치했다. 대구소 향리가 최사전에게 또 술을 권했다.

“예전에는 탐진 청자허고 비슷한 것덜이 여그 저그서 나왔는디 인자는 탐진 청자가 최고가 되부렀그만요.”

“향리 나리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다른 디 청자 가마덜은 다 읊어져가고 있지라우. 부령이나 고안만 빼고 말이요.”

최사전은 대구소 향리가 ‘우물 안 개구리’라고 생각했다. 탐진 수준의 청자가 송나라에서도 생산되고 있다는 말을 작은아들 최열에게서 들었던 것이다. 며칠 전 작은아들 최열이 탐진으로 내려와 아버지 최사전과 사흘을 함께 보내면서 개경의 별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송나라 사신이 인종1년에 와서 한 달쯤 머무르는 동안 그들이 전한 이야기들이었다. 인종1년은 자신이 귀양을 떠난 작년의 일이었으므로 최사전으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송나라 사신이 온 이유는 예종의 명복을 빌고 인종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런데 송나라 사신 서공이 만찬석상에서 식탁의 청자그릇들을 보고 감탄했다고 하는데, 최사전에게는 그 이야기에 관심이 더 갔다. 최사전은 탐진의 청자 매력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찬석상에서는 대부분 금이나 은으로 도금을 한 그릇들이 나오는데, 서공은 유독 청자그릇들을 보고 놀라더라는 것이었다. 송나라 사신일행을 맞이한 접반사 김부식의 역관이 서공의 말을 직접 듣고 탐진 청자를 갖고 있는 개경의 어떤 대신에게 말해주었다는 전언이었다. 서공은 당나라 도자기술을 고려가 모방했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뛰어난 탐진 청자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후문이었다. 송나라 사신 우두머리 노윤적(路允迪)이 있었지만, 고려의 접반사 일행이 서공을 주목했던 것은 그가 시서화 삼절인 데다 도자기를 보는 안목이 뛰어나서였다.

대구소 향리도 송나라 사신일행이 작년에 개경에서 머물다가 간 사실은 알고 있었다.

“송나라 사신 중에 서공이란 자가 우리 탐진 청자를 보고 ‘저 빛깔을 빛이라고 하는가?’ 하고 물었다그만요.”

“탐진에서 달리 부르는 말이 있소?”

“그건 아니그만요. 근디 서울에서 우리 탐진 청자를 갖고 있는 분덜은 비색(翡色)이라고 혀지라우.”

“비밀스럽다고 해서 비색(秘色)이라고 오해하기 쉽겠소.”

“비색(秘色)이라고 헛는 것은 당나라 월주도공덜이 자기덜이 맹근 청자 빛깔을 누구도 송내낼 수 없다고 해서 고로코름 부른 거그만요.”

“그리고 보면 탐진 청자의 비색(翡色)은 당나라 월주청자의 비색(秘色)을 뛰어넘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소.”

“태의 나리께서 고로코름 말씀해주신게 가심이 벅차불그만요.”

“서공의 말에 의하면 송나라 휘종이 지원하는 관요인 여요에서 나오는 청자들도 대단한 것 같소.”

송나라 휘종은 통치에 있어서는 암군이었지만 시서화에 능할 정도가 아니라 균계일학의 경지에 오른 황제였다. 도자기에도 안목이 뛰어나 그가 관요인 여요에서 나오는 청자들을 품평하는 것도 그러한 예술적 취향에서 비롯했다. 실제로 휘종은 “궁중에서 사용하는 백자그릇들을 치우고 모두 청자그릇으로 바꾸라.”고 지시하기도 했던 것이다.

휘종 황제는 서공보다 먼저 민간무역을 하는 송나라 상인들이 진상한 고려 비색청자를 보고 “청자는 고려를 뛰어넘을 수 없고, 백자는 송나라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단언했던 적도 있었다. 그것은 빛깔 때문이었는데 고려청자는 맑고 열은 청록색의 비색이었고 송나라 여요청자는 뿌연 빛이 감도는 청회색이었던 것이다. 물론 당나라 월주의 탁한 뇌록색 청자에서 송나라 여요의 맑은 청회색은 한층 발전된 것이기는 했다. 아무튼 미묘한 빛깔의 차이를 감별할 수 있을 정도로 휘종의 안목은 탁월했는데, 서공도 그에 못지않았다.

그는 귀국해서 휘종에게 올리는 보고서인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도기항아리(陶尊) 조(條)에서 그림을 그리고 설명했던 것이다.

‘도기의 색이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이라고 한다. 근년에 들어 제작이 공교해지고 광택이 더욱 아름다워졌다. 술항아리(陶尊)의 형태로

참외 모양이 있는데, 연꽃에 오리가 얹드린 모양의 작은 뚜껑이 있다. 또한 사발, 접시, 찻잔, 꽃병, 탕잔도 잘 만들었는데, 모두 당나라와 송나라의 일정한 형태를 모방했으므로 생략하여 그리지 않겠다. 그러나 술항아리만은 다른 그릇과 다르므로 특별히 알린다.’

또한 도기향로 조에서도 고려의 사자 모양 뚜껑의 향로를 소개했다.

‘산예출향(狻猊出香) 또한 비색이며 위에는 쭈그리고 앉은 짐승이 있고, 아래에는 연꽃이 그것을 받치고 있다. 여러 기물 가운데 이것만이 가장 정교해서 빼어나고, 그 나머지는 월주의 옛 비색(秘色)이나 여주의 새로운 가마의 기물을 본받아 대체로 유사하다.’

산예출향(狻猊出香)이란 사자 모양 입에서 연기가 나오도록 조각한 향로라는 뜻이었다. 또 연례연의(燕禮燕儀) 조에서는 ‘그릇은 금이나 은으로 도금한 것이 많고 청자는 값진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연례연의란 사신들의 식사 혹은 만찬석상을 뜻하는데, 거기에도 최상품의 탐진 청자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는 내용이였다.

서공의 보고서 <선화봉사고려도경>은 송나라 장사꾼들이 구입해 간 탐진 청자들이 황실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에 나라의 정식보고서로 인정받는 쾌거였다. 서공은 송나라 관요인 여요에서 생산하는 청자가 있지만 고려의 청자술항아리나 사자모양뚜껑향로는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맑은 비색(翡色)이며 조각이 정교하고 탁월한데, 외국사신을 접대할 때 식탁이나 만찬석상에 선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로 올렸던 것이다. 비색청자는 두말 할 것도 없이 탐진에서 만든 청자였다.

대구소 향리는 최사전과 술을 마시며 얘기하는 중에 탐진 청자에 대한 자부심과 야심을 드러냈다.

“태의 나리, 탐진 청자가 비색 하나만 갖고 송나라 사람덜이 평가를 허는디 지는 불안허그만요. 송나라 도공덜이 은제라도 송내를 내겼지라우.”

“송나라 사람들은 비색청자라고 부를 만큼 인정하는데 어째서 불안하다는 말이요?”

“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와 비슷허게 고민허는 여그 도공덜이 있그만요.”

최사전은 탐진 도공들이 비색청자에다가 무엇을 더 보태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한 고민은 대구소 향리뿐만 아니라 탐진 도공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생각이 모아진 듯했다. 그러나 최사전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서공이 휘종에게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을 보고한 이후에도 남송 학자 태평노인이 저술한 <수중금(袖中錦)>이란 저서에서도 고려비색을 즉 탐진 청자를 언급했던 것이다. <수중금>이란 태평노인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만을 소개한 ‘천하제일’ 편이 있는데, 청자는 고려 비색, 벼루는 단계의 벼루, 백자는 정요(定窯)의 백자, 낙양의 모란꽃, 건주의 차(茶), 축의 비단 등을 꼽았음이었다.

최사전과 대구소 향리는 술을 여러 잔 마신 뒤에 탐진 차를 마신 덕분인지 대취하지는 않았다. 최사전은 대구소 향리의 술대접을 받고는 몹시 흐뭇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소 향리는 개경으로 가는 물건이 있으면 자신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청자운반선이나 조운선이 뜰 때가 있을께 은제든지 말썸만 허씨요.”

“개경으로 가는 배가 언제 있소?”

“도공덜이 가을 가마에서 기물을 꺼내든 바로 뜰 거그만요.”

대구소 향리의 말은 가을 가마에서 기물을 꺼낸 뒤 바로 조운선이 개경으로 갈 것이라는 뜻이었다. 대구소 향리가 말했다.

“서울(개경)로 보낼 물건이 있는게라우?”

“아들에게 보낼 청자술잔, 청자합이 있고, 선물할 청자항아리가 있소.”

“고것뿐이라든 아무 탈 읍이 서울까지 보내드리겠습니까요.”

“향리 나리, 고맙소.”

“무신 말썸인게라우. 태의 나리께서 탐진 사람덜이 아프든 어디든 달려가시어 치료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었그만요. 궁께 고마워히실 것은 읍지라우. 배가 뜨기 전에 대구소나 미산포로 기물들을 보내 주시든 처리허겠습니까요.”

“향리 나리, 궁금한 것이 하나 있소.”

“말썸해 보시지라우.”

“우리나라는 땅이 넓은데 어째서 탐진에서만 청자를 만드는 것이오?”

“원래는 바다가 있는 서쪽 여러 곳에서 청자를 맨들었지라우. 개경 부근이나 인주(인천), 부령, 고안 등 여러 곳에서 맨들었지라우.”

실제로 고려 초기에는 개경 부근에도 청자 가마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왕실의 그릇이나 고려 태조(太祖)를 비롯해 선왕들을 제사지내기 위해 건립한 태묘(太廟)에서 사용할 제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가마들이었다. 그런데 개경 부근 가마들에서 생산한 청자들은 대부분 황갈색으로 비색이 아니었다. 성종12년(993)에 도공 최길회(崔吉會)가

만든 제기인 향아리도 청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빛깔이 황갈색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은 탐진에서만 청자를 만들고 있소?”

“지방도 부령이나 고안에서 맨들고는 있지만 다른 디는 다 읍어져 부렸지라우. 이유는 탐진의 태토만 비색을 내기 때문이지라우. 또 탐진은 신라 때부터 토기를 맨들어온 고장이라 흙을 다루는 기술이 다른 디보다 훨씬 뛰어나그만요.”

대구소 향리의 말은 애항심에서 나온 과장이 아니었다. 탐진에는 도기를 빚는 기술이 축적돼 있었고, 무엇보다 청자의 비색을 내는 태토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을 압도했다. 개경 왕실에서도 이제는 탐진 가마들을 관요로 인식할 정도였다.

최사전은 대구소 향리가 내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모처럼 문식이 있는 대구소 향리와 술과 차를 주고받았기 때문인지 마음이 한껏 충만했다. 귀양살이하면서 처음으로 지적 갈증을 마음껏 풀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최사전은 들뜬 기분으로 벼루에 먹을 갈았다. 개경으로 청자를 보내는 김에 큰아들 최변에게 편지도 부칠 셈이었다. 최사전은 일필휘지로 단숨에 써내려갔다.



<변(弁)아 보아라.

관직생활은 공명정대하게 잘 하고 있느냐? 이 아버지는 조상님들이 살았던 탐진에서 인술을 베풀며 마음 편히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일전에 네 동생 열이가 내려와서 서울 소식들을 여러 날 동안 들은 뒤로는 비록 탐진에 살고 있지만 서울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구나.

청자합을 여러 개 보내니 하나는 네 어머니에게, 또 하나는 네 아내에게, 또 하나는 네 동생 아내에게 주거라. 화장품합으로 좋을 것이니라. 상약국이란 명문이 있는 합은 상약국에 약통용으로 기증하거라. 상약국에 보내는 까닭은 조부 때부터 네 동생까지 4대 태의 집안이니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연꽃 뚜껑이 있는 청자항아리는 이 아버지가 보냈다면 이자겸 대인에게 전해 주거라. 하인에게 심부름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들고 가야 한다. 세상 인심이 각박하고 험악해서 아버지의 진심이 왜곡될 수 있으니 하는 말이다.

너는 과거급제한 뒤 이제 이부상서에 올랐고, 동생은 집안의 가풍을 이어 태의가 됐으니 어머니를 잘 봉양한다면 이 아버지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탐진에서 아버 씬>

최사전은 붓을 놓고 큰 대자로 드러누웠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등창으로 죽은 예종 때문에 모함을 받아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 했던 일이라면 역대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자신이라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은혜를 갚는 보은이 아닐까 싶어서였다. 어느 새 최사전은 귀양살이의 외로움과 고달픔을 떠나 달관하고 있었다. 더구나 인술을 베푸는 일은 궁중과

지방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이튿날.

김 도공이 보따리 하나를 메고 최사전의 적거(謫居)로 찾아왔다. 귀양 살이하는 초가를 적거라고 불렀다. 김 도공의 표정은 환했다. 최사전은 김 도공의 얼굴을 보고 그의 가을 가마 기물들이 잘 나와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했다. 최사전이 예상한 대로였다.

“태의 나리, 이번 가마에서 나온 청자빛깔이 연헌 갈맷빛 산자락멩키로 참말로 좋그만이라우. 마치 물총새 깃털 같아라우.”

“내가 부탁헌 합도 그러고?”

“합도 잘 나왔어라우. 젤 좋은 칸에 넣었그만요. 불대장은 옆집 도공이 맡아 줬그만요.”

“가마 어디가 좋은 칸인가?”

“봉통에서 가차운 첫 번째 칸은 고온으로 올리기가 수월허지 않고, 마지막 시 번째 칸은 귀뚝이 붙어 있는게 유약과 태토가 잘 녹지 않지라우. 궁께 가운데 칸이 젤로 잘 나오지라우. 태의 나리께서 부탁허신 합은 모다 가운데 칸에 재임했지라우.”

“어서 한 번 보고 싶네.”

김 도공이 보따리를 풀었다. 과연 청자합 모두가 광택이 살아 있고, 투명한 연듯빛이었다. 그윽한 청록색의 비색이었다. 최사전은 상약국이라고 쓰인 합부터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유리질이 잘 녹아 감촉도 그지없이 좋았다. 화장품합보다 통이 깊고 커서 희귀한 약재 약통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자네는 탐진에서 행수도공이라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겠네.”

“지는 아직 멀었그만요. 도자기 성형도 잘 허지만 그림까지 잘 그리는 도공이 있그만요.”

“틈틈이 배워두게.”

“탐진에도 나전칠기를 맨들었던 도공이 있는데 향리 나리께서 가끔 탐진 도공덜을 대구소로 불러 그 도공헌테 버드나무나 새, 구름, 학 그리기를 배우게 허고 있그만요.”

“왜 그런가?”

“향리 나리께서는 탐진 청자가 참말로 천하제일이 될라든 그림이 들어가야 현다고 그란디 지 생각은 쪼깐 다르그만요.”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송나라 화가덜이 그림을 잘 그리는디 어처케 지덜이 더 잘 그리졌습니까요.”

순간, 최사전은 대구소 향리가 지금보다 더 뛰어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도공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한 말이 떠올랐다. 나전칠기를 만들었던 도공이 탐진 비색청자에 어떤 영감을 불어넣을지도 몰랐다. 이층장이나 팔각함 같은 목기(木器)에 청록빛깔을 띤 전복껍데기로 화려한 문양을 만들어 상감한 공예품을 나전칠기라고 불렀다. 나전칠기는 원래 당나라에서 들어왔으니 지금은 고려에서 송나라로 보낼 만큼 유명한 상감목기였다. 서공의 <선화봉사고려도경>에도 소개가 되었을 정도였다.

“지는 청자에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나전칠기 기법으로 문양을 넣으면 으쩍까 생각 중이그만요.”

“다른 도공도 자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라지라우.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어처케 화상맨치로 잘 그리졌습니까요.

공계 구름이나 학 같은 문양이 익숙해지른 성형헌 도자기에 칼로 파서 거그를 백토 같은 것으로 메꾸든 냐중에 그대로 문양이 나오겠지라우.”

최사전은 방으로 들어가 일전에 김 도공이 선물한 청자항아리를 들고 나왔다.

“대구소로 가는 길에 청자합과 청자항아리를 향리 나라에게 전해주게. 이 편지도 함께 말이네. 향리 나라가 조운선에 실어 보내준다고 약속했네. 이걸 내 마음이니 받아주게.”

“아이고메, 요것이 빛이대요?”

“내가 주문한 청자합을 가져왔으니 대가라고 생각하게.”

김 도공은 두 손을 저으며 최사전이 내민 은 열 냥을 뿌리쳤다.

“지 마누라허고 아들을 살려준 분헌테 받으면 되겠습니까요. 그래도 주신대문 다시는 태의 나라께 오지 안겠습니까요.”

“허허허. 할 수 없네. 나는 또 자네에게 빛을 졌네.”



김 도공은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더니 줄행랑을 놓듯 최사전의 초가를 빠져나갔다. 최사전은 사라지는 김 도공의 뒷모습을 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기러기 떼가 줄을 지어 만덕산 너머에서 천개산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계속>